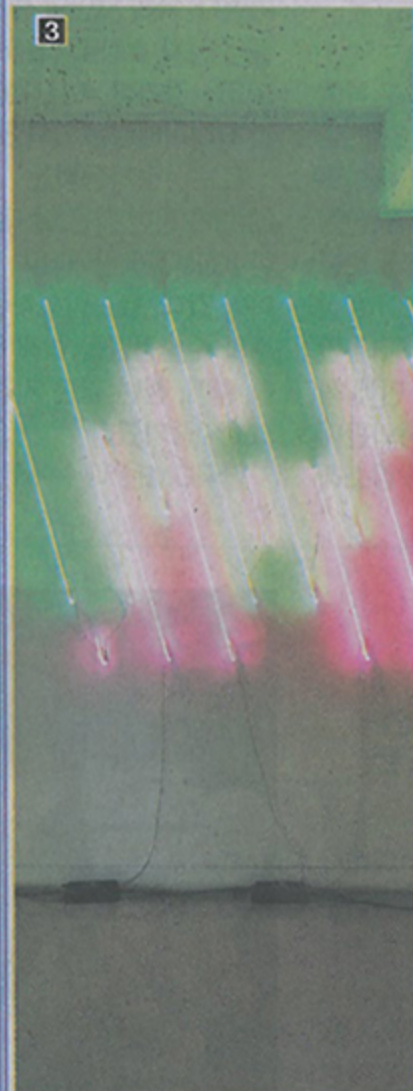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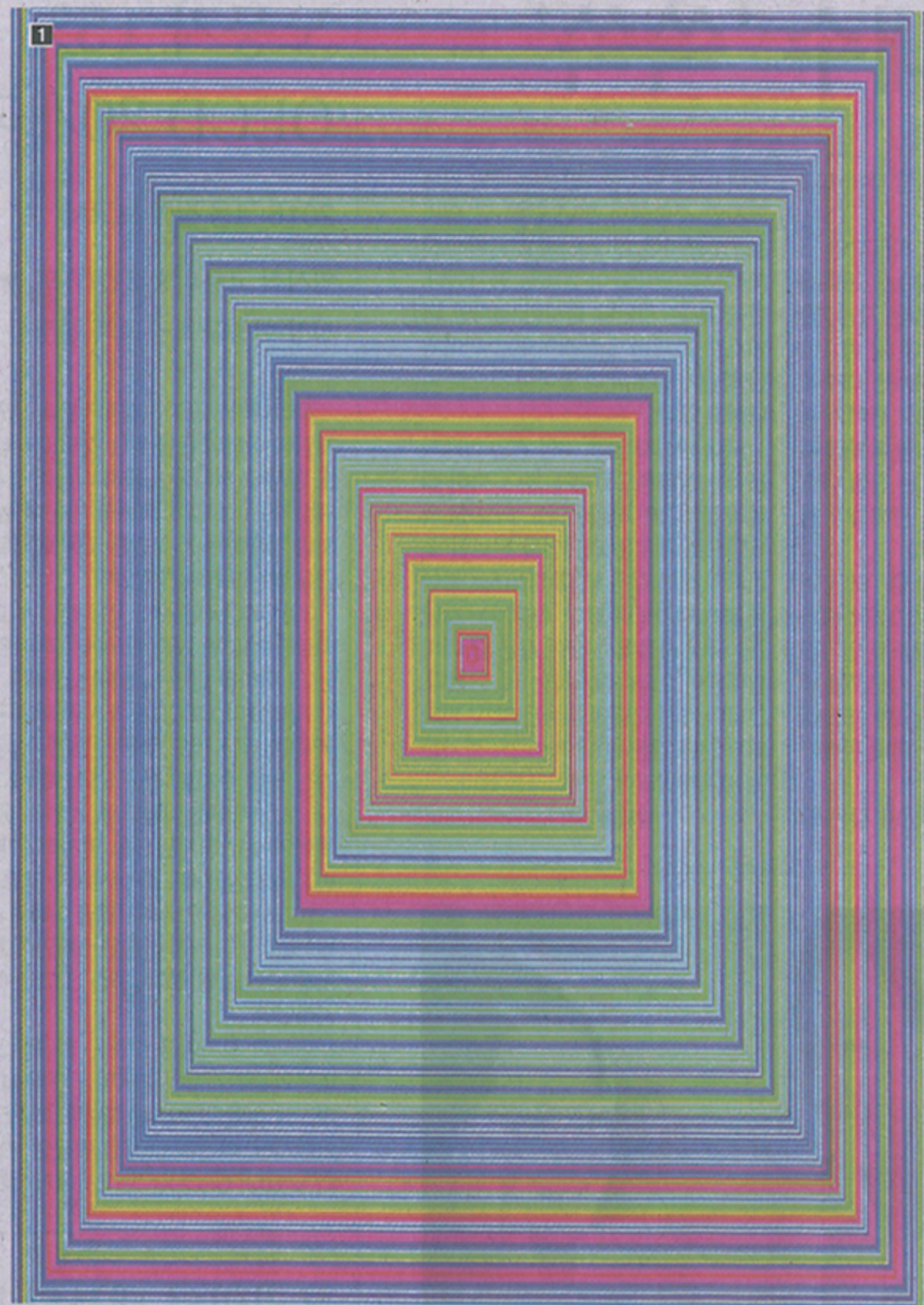


10월 23일까지 사비나미술관 컬러스터디展

# 그들은 색을 듣는다



색(色)에 대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과 탐구 방식을 보여 주는 사비나미술관의 '컬러스터디'전에 소개된 작품들. 1 색을 소리 파장으로 변환해 화면에 재구성한 닐 하비슨(인물사진)의 작품 '버락 오바마의 색상 악보' 2 조소희의 '색/빛 만들기' 설치 3 진달래&박우혁의 'WH' 4 양주혜의 '에피소드 슝' 5 박미나와 문형민의 작품이 설치된 미술관 2층 전시장.

사비나미술관 제공

'선천적 색맹'  
英 닐 하비슨 등 참여  
'가지각색' 작가들의  
색을 대하는 태도  
사진·조각·빛·사운드 등으로 표출해  
아동 색칠공부·색연필  
이용한 작품부터  
'자본주의 상징'  
바코드에 담아낸 12색  
음으로 바꾼 영상 속의 색까지  
'흥미진진'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조르주 쇠라(1859~1891)는 작은 색점들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점묘법을 개발했다. 색점들은 관람자의 눈 속에서 결합돼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남아 화려한 빛을 발하기도 한다. 앙리 마티스 등 야수파 화가들은 강렬한 원색을 캔버스에 들여와 당대에 화제가 됐다.

색채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연구했던 로베르 들로네(1885~1941)는 "형태를 빛으로 분할하면 색채의 면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색채의 면들이 그림의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예술가들에게 색(色)은 예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자 작가적 정체성을 내포하는 중요한 수단이 돼 왔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 '컬러스터디'는 예술가들이 색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에 초점을 맞춘 전시다. 강재현 큐레이터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색을 선택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은 색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색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며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표현 수단, 혹은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색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색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과정에 주목했다"고 설명

했다.

전시에는 문형민, 박미나, 양주혜, 정승, 조소희, 진달래&박우혁, 하이브 등 한국 작가들과 연출사진으로 유명한 베르나르 포콩과 샌디 스코글랜드, 색을 듣고 이를 시각예술로 재해석하는 '사이보그 작가' 닐 하비슨이 참여한다. 회화와 사진, 디자인, 조각, 빛과 사운드,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색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보편적 진리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의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문형민은 사비나미술관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21개 기획 전시의 도록에 수록된 단어와 색을 분석한 뒤 상위 10개의 단어를 빈도수 비율에 따라 색으로 추출해 2층 전시장 벽면을 채웠다.

박미나는 어린이용 색칠공부 도안을 각기 다른 입체에서 생산된 12색 색연필로 칠해 보며 '색'의 상품 가치에 대한 의문을 시각화했다. 양주혜는 자신의 색점 연작에서 취합한 12가지 색을 21세기 자본주의의 상징인 바코드에 담아냈다.

정승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색깔의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다. 경고, 안전, 위험의 의미로 쓰이는 황색, 녹색, 적색의 경광등 커버를 5m 길이로 이어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낮춘 설치작품으로 환기시킨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진달래&박우혁이 선보인 사진 형태의 네온 작품 'WH'는 선스펙트럼을 상징한다.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가지 색이 만들어 내는 간섭과 충돌이 사물의 속성을 새롭게 드러내는 현상은 알파벳을 조합해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뉴미디어 아트그룹 하이브는 소리에서 색을 연상시켰던 러시아 작곡가 스크랴빈에게서 영감을 받아 색을 음계로 번역하는 다채널적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설치된 카메라에 촬영된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의 색값을 계산해 낸 뒤 스크랴빈이 정의 내린 색과 음의 관계에 적용해 소리로 전환하고, 디지털 피아노에서 자동 연주되는 시스템이다.

미술관 지하에는 색과 빛의 삼원색과 기호들을 바탕으로 한 조소희의 '색/빛 만들기'를 설치했다. 긴 실을 한 줄, 두 줄 서로 엮어 가며 설치하는 작업 방식으로 시간의 축적 속에 삼원색의 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작가는 "삼원색이라는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색과 빛에 대한 은유"라고

말한다.

세상이 회색톤으로만 보이는 선천적 전색맹(全色盲)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국 작가 닐 하비슨은 보는 색의 개념을 듣는 색으로 뒤집는다. 작곡을 전공한 그는 2004년 색을 소리 파장으로 변환해 주는 '아이보그 안테나'를 두개골에 영구 장착했다. 하비슨이 인공두뇌학 전문가 아담 몬텐던과 함께 고안해 낸 아이보그는 눈높이에 위치한 작은 센서로 색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나 전자침에 전송해 빛의 파장을 소리 파장으로 변환해 준다. 아이보그 안테나를 이용해 색을 소리로 변환해 듣고 이를 화면에 재구성하는 게 하비슨의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는 아이보그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세로로 긴 그래프선 위에 눈, 입술, 머리, 피부색의 주파수를 색으로 구성한 '소리 초상화'(Sound Portrait)와 세상의 다양한 소리가 색으로 들리게 된 이후 선보인 '색상 악보'(Colour Score)가 소개된다. 이밖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플레이 메이커스랩'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빛(색)에 대한 시지각 반응을 보여주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색채연구실은 선풍기의 컬러 팬을 이용해 색의 회전혼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10월 23일까지. [hamhori@seoul.co.kr](mailto:hamhori@seoul.co.kr)